

# 中 불교 증흥에 동물 복지 운동 '젠걸음'

## 생명존중사상 영향으로 동물보호 중요성 역설

중국 불교 증흥과 함께 동물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 철학이 돌풍을 일으키며, 공산주의 출현과 함께 억압돼 온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 것이다.

'Eurasia review'는 2월 5일 "중국 불교 증흥이 수십 년간 정체됐던 동물 복지 운동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동물복지 관련 법안을 수정 검토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National People's Congress, 중국의 최고 국가기관)는 1989년 발효된 야생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 법안에 대한 공공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1989년 야생동물 사육허가를 법적으로 인정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사육 및 교육하는 것이 보호의 한 방법이란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 법은 동물착취산업 성장을 중용한 단이로써 최근 몇 년간 동물복지가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Eurasia review'는 "동물보호란 목적보다 다른 용도로 악용될 수 있는 정부의 야생동물보호 방침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은 중국 당국을 설득하는 데 성

공했다"며 "2013년 9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공공의견을 수렴해 입법 개정안을 제정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불교 증흥은 이러한 동물복지운동 바람에 방아쇠를 당겼다. 공산주의 아래 억압받은 종교 및 철학 사상이 재변영하며, 생명존중사상 등이 조망받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불교 생명존중사상에

**공산주의 시대 억압받은 불교 '생명존중사상' 확산되며 동물보호단체 활동 '활성화' NPC, 야생동물보호법 개정기로**

뜻을 둔 동물보호단체 및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대거 설립되고, 채식당 및 애완동물 사육이 큰 인기를 끌었다.

'Eurasia review'는 "1994년까지만 해도 정부는 개인의 애완견 소유를 강력히 규제하고, 유기동물이 길에서 발견된 경우 죽이기도 했다"면서 "불교 등 종교 사상이 공산주의에 반해 경제적 자원의



방목에 위치한 불교 사원에서 한 남성이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Eurasia review

로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동물 애호(愛護) 행위가 사유재산을 증식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단 우려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 3대 종교·철학인 불교, 유교 및 도교는 공산주의 시대 개막과 함께 억압을 받아왔다. 마오쩌둥 정부는 불교 철학 등을 '유해', '반혁명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규제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3대 종교가 주장하는 생명존중 및 자비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정부는 애완동물 사육을 엄격히 제한했다.

이에 대해 중국사회주의연구소 맹 핑(Mang Ping) 교수는 "중국 문화는 불교의 핵심사상인 '자비'에 내장돼 있다"며 중국 사회서 불교 사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맹 핑 교수는 "중국 사료에 따르면 고대 왕조는 가족새끼, 임산부, 가축 등 죽이는 것을 허용치 않았다"면서 "서커스용 곰, 실험용 동물 등 실시하는 오늘날 우리가 전통 문화를 지켜낼 수 있을까? 불교의 자비사상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중국 문화 전체를 잃고 말 것"이라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인도, 비자심사 완화 '고려 중'

### 안사리 부통령 동남아 순방서 발표... 불교성지순례 활성화 목적

최근 인도가 불교성지순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회원국의 비자발급완화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동남아 순방을 마친 하미드 안사리 인도 부통령은 2월 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쫄랄롱콘 대학교에서 '인도, 태국 그리고 아세안-관계회복의 밑그림'을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발표에서 그는 "인도 아소카왕은 불교 특사를 보내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전파했다. 이곳에서 인도 신화와 민속 문화 등이 발견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화적 연결성이 향후 아세안(ASEAN) 회원국과 인도의 결속력을 다지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사리 부통령은 50년 만에 처음 동남아지역을 방문해 인도네시아 보로부드르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인도 가 전파한 불교문화유산의 증거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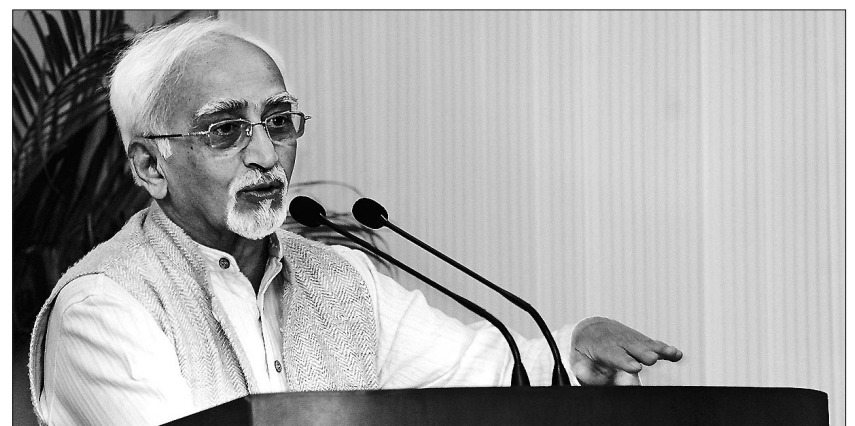
그는 "태국 서사시 라마끼엔(Ramakien)은 고대인도 2대 서사시

중 하나인 라마야나(Ramayana)를 바탕으로 한다. 이밖에도 아삼(Assam) 지방 소수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태국어와 관련이 있다"며 "뿐만 아니라 18~19세기 근대에는 많은 인도인들이 동남아로 이주했고, 이런 연관성들을 고려해 인도는 아세안 회원국들의 불교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비자발급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사리 부통령은 나란다 대학의 재건립도 언급했다. 그는 "나란다 대학은 한 때 세계적 명성을 떨친 '지식 창고'로 세계석학들이 나란다에서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류했다"며 "나란다 대학은 몇몇 아세안 국가의 협력 속에 21세기에 걸맞는 세계적 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에서 온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세안 회원국으로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과 베트남이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하미드 안사리 인도 부통령(사진)은 불교성지순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의 비자발급 완화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더이코노미타임스

# 화재로 잃은 법당, 이웃종교 도움으로 법회 재개

## 종교화합회 평화모임 열어... 재건기원과 종교간 화합 도모

화재로 갈 곳을 잃은 미국의 한 불교 명상센터가 지역 내 이웃종교의 도움으로 법회를 다시 열었다. 이는 '종교간 화합'을 몸소 실천한 사례로 꼽히며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 일간지 '컬럼버스디스패치'는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미국 오하이오주 불교명상센터가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보도했다.

컬럼버스 카르마 태심 출링 명상센터(the Columbus Karma Thegsum Choling meditation center, 이하 KTC)는 1990년부터 오하이오 불자들을 위한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화재로 KTC명상센터는 불교 경전 몇 권과 1977년에 지역 불교모임을 만든 데이비트 승려 캠프 카르타리 린포체로부터 받은 불상을 제외한 대부분이 불에 탔다. 특히 40년 간 녹음해 온 법회 오디오



화재로 갈 곳을 잃은 미국 오하이오 KTC명상센터 신도들은 한 장로교회에서 마련해준 공간에서 임시 법회를 열고 있다. 사진출처=컬럼버스디스패치

오 음반이 모두 소실되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고펀드미닷컴(GoFundMe.com)'을 통해 기부금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10만 8천 달러 정도가 모였으며 명상센터 임직원들은 이 돈으로 건물을 신축할지 또는 이사할지 고민하고 있다.

또한 오하이오 종교화합회(Interfaith Association of Central Ohio)는 종교간 평화모임을 열고, KTC명상센터 재건 기원과 함께 종교간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종교화합회장 필 시번은 "이번 평화모임은 미국 전역 곳곳에 직면한 위기에 대응기 위해 몇 달 동안 계획된 것"이라며 "비록 다른 종교를 지

향할지라도 우리는 연민심으로 이웃과 함께할 것이다. 만약 우리 모임 중 한 종교단체가 KTC명상센터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어퍼 엘링턴에 있는 장로교회도 KTC명상센터에 도움을 손길을 내밀었다. 법회 및 명상 공간을 잃은 신도들을 위해 교회 공간을 기꺼이 내어준 것이다. 이에 KTC명상센터 신도들은 개인 명상용 방석과 경전 등을 가져와 화재 후 중단됐던 법회를 처음으로 열 수 있었다.

KTC명상센터 지도법사 웨슬리는 "유대교와 인근 아트갤러리에서도 장소를 빌려줬다"며 "신도들은 넘치는 지원과 관심에 어쩔 줄 몰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하이오 소방서는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곧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사가 끝나면 KTC명상센터가 있던 크랭클린턴 빌딩은 곧 철거될 계획이다.

이보형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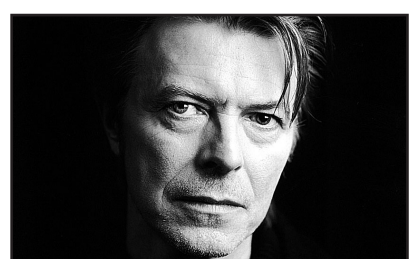
## 故 데이빗 보위 "발리섬에 유해 뿌려달라"

### 장례도 불교식으로 비공개 진행

불자로 알려진故 데이빗 보위(David Bowie·사진)가 그의 장례식을 불교식으로 치루길 바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1월 29일(현지시간) 데이빗 보위가 작성한 유언장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데이빗 보위는 불교식으로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화장 후 유해는 그가 평소 좋아하던 발리의 한 섬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존중해 장례식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식은 가족끼리 비공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thecomeback.com

발리섬은 주민 대부분이 힌두교도로, 독특한 전통 음악과 예술로 유명하다. 또 영적(靈的)인 의식이나 정신적인 고양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장소로도 알려져 있다. 데이빗 보위 역시 발리섬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의 각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www.dongsanbud.net

2016년 48기 신입생모집 [2년과정]

● 불교학과 [3월 5일(토) 오후 5시 입학식]

- 토요일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목요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통산반 [CD 배송]

|     |    |   |
|-----|----|---|
| 1년차 | 과목 | ① 불교개론(아함경 1) ② 불교문화와 포교 ③ 선불교 ④ 근본불교(아함경 2) ⑤ 반야심경 ⑥ 유식불교              |
| 교수진 |    | 법산 경일스님(학장), 이미령교수, 최중석교수, 윤영수교수, 법인스님, 김호규교수, 활안스님, 최병수교수, 김형준교수, 모주스님 |
| 2년차 | 과목 | ⑦ 인도불교 ⑧ 중국·한국불교 ⑨ 법화경 ⑩ 화엄경 ⑪ 정토경 ⑫ 대승불교와 밀교                           |
| 교수진 |    | 정병조교수, 황순일교수, 차차석교수, 김경집교수, 문무영교수, 정영스님, 주영철교수, 박종교수, 정성준교수             |

■ 모집인원(불교학과) : 120명 (토요일, 목요일, 통산반 각 40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영원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6년 1월 1일부터 ~ ■ 문의 : (02) 732-1206~8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 연합회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 선·명상학과(원효염불) [3월 10일(목) 개강] ● 불교다도학과 [3월 8일(화) 개강] ● 불교미술학과 [3월 10일(목) 개강]

불교교육 전법도량 통산반아회  
**동산불교대학·대학원**

사무처 : (우)0315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대학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www.dongsanbud.net

**무료 공개 강의 안내**

사주를 잘 몰라도... 통변에 자신이 없어도... 상담이 가능한 획기적인 프로그램 개발 완료!  
인터넷을 할 줄 알고 프린터 출력을 할 줄 알면 그 즉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방문하시어 직접 경험해 보면 스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진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  
성인에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알려주는 내용!

- 문, 이과 통합과 이 시기에 필요한 프로그램!
- 컴퓨터에 생년월일만 입력하거나 설문응답 자료를 입력하고 인쇄 출력하는 방법만 알면 즉시 자료를 보고 상담이 이루어진다.

유형 : 생년월일 기준, 설문조사 기준

- ▶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그 순간 16장의 자료가 출력된다. (학생, 성인용)
- ▶ 1년 신수를 월별로 데이터화 한 자료가 5장 출력된다. (학생, 성인용)
- ▶ 설문응답을 마치는 순간 15장의 자료가 출력된다. (학생, 성인용)

"인문계 고3학생과 명문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기준하여 완성된 프로그램"

- 진학상담교사, 학원운영자, 종교인(스님), 철학인, 심리상담사, 직업상담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 본 연구학회와 함께 할 지사 모집

공개 강의 일자 : 2016년 2월 20일(토요일) 오후 2시 ~ 5시 (3시간)

장 소 : 진로적성힐링상담소 401호 [충신대역 5번 출구 200m] (방배동 950-1번지)  
연구소 : 010-5418-5972 / 강북지사 010-2146-1346 / 경기지사 010-8862-6624